

哲學과 知性

-哲學精神의 再建을 爲하야- (二)

金午星

그러나 이러한 民族的 特性이 哲學을 地方的, 民族的인 것에 束縛하는 所以는 되지 못한다. 哲學의 本性은 論理的 判斷이다. 그런데 論理的 判斷은 自己를 그 어떤 特殊目的에로 制限할 수는 없는 것이다. 論理的 判斷은 언제나 一般性, 普遍性을 志向하고 잇는 것이다.

特殊的인 것이 一般性, 普遍性을 獲得할 때 비로소 哲學은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地方的, 民族的인 것에만 執着하는 限, 거기에는 民族的 信仰은 잇을지언정 哲學은 잇을 수 없는 것이다.

論理的 判斷을 갖인 哲學은 그 어느 民族의 哲學일지라도 世界性, 人類性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 反對로 論理的 判斷을 拋棄하는 限, 그 어떤 先進民族의 言說도 그것이 哲學으로서 成立될 수는 없는 것이다. 哲學의 生命은 어디까지나 論理的 判斷 즉 知性的인 것에 잇다.

그러므로 論理的 判斷을 拋棄하는, 즉 反知性的인 現代의 非合理主義의 哲學은 哲學이 信仰에로 自己를 讓步, 또는 轉身하는 形態에 不過한 것이다. 哲學의 精神을 喪失한 哲學(?), 이것이 今日의 온갖 民族主義 哲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代哲學은 地方的, 民族的인 情熱과 神話的인 信仰에 依하야 哲學 本來의 精神을 □□ 當하면서 잇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이 知性を 喪失하게 된 것은 그實, 어느 一部の 哲學이 그 知性を 維持할 수 없음에서 由來된 것이 아닐까? 一部の 哲學이 哲學 本來의 精神을 拋棄하고 地方的 信仰에 轉落되는 것은 그것이 嚴肅한 意味의 哲學史의 運命에서 나타나는 現象이 아닐까? 哲學이 知性を 拋棄하고 哲學 本來의 精神을 喪失함은 哲學의 危機이며 哲學의 한 悲劇的 場面이 아닐 수 없다.

그러타! 哲學은 지금 絶大한 危機를 經驗하고 잇다. 歷史上의 그 어떠한 偉大한 哲學體系도 現代人의 懷疑를 解決해주지 못하고 잇으며, 現代의 그

어느 有能한 哲學者도 現代人の 不安과 苦惱에 찬 精神生活에 滿足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現代의 그 어느 進步的인 哲學도 한 가지로 體系의 缺如, 理論의 貧困을 보혀주지 않는 것이 없다. 말하자면 哲學의 生産이 停止되어 있는 狀態다. 한 사람의 칸트나 헤겔이 나타나지 못한다. 現代의 젊은 知性人의 만흔 支持를 받고 있는 實存哲學 等도 그것이 現代 知性人의 精神的 狀況을 잘 表現하고 있음에는 틀림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한 개의 體系로서 또는 한 개의 論理로서 가지기에는 너무나 貧困을 느끼게 된다. 하나 實存哲學 그것이나마 아직 만흔 解決해야할 問題를 包裝한 채 오랫동안 아무런 勞作을 보혀주지 못하고 있다. 大戰 前後에 있어 最大의 哲學者란 公稱을 받고 十餘年間을 沈黙해 오다가 비로소 發表한 베르손[베르그송]의 道德과 宗教의 二源泉도 大戰 前의 自己의 思想을 한갓 演述한 程度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런 獨創的인 것을 보혀주지 못했다. 더욱이 나치스의 獨裁가 出現된 뒤의 哲學界는 文字 그대로 閑散하다.

말하자면 哲學에 있어 知性的 喪失은 哲學의 貧困, 哲學의 危機를 나아 노았으며, 따라서 哲學의 生産을 停止시키는 現代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哲學의 貧困, 哲學 生産의 停滯가 이즘, 非哲學的인 것을 哲學으로서 主張하는 機會를 지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哲學의 貧困, 哲學의 危機를 나아준 哲學에 있어 知性的 喪失은 어디서 原因한 것인가? 哲學이 知性を 維持할 수 없게된 理由는 어디 있는가?

X X

우리는 近代의 哲學이 知성을 喪失하게 된 理由를 近來의 □□問題가 提起된 現實狀況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周知하는바와 같이 知性□□□ “知性的 混亂, 知性的 危機”의 絶叫와 함께 □□에 울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 知性的 混亂, 知性的 危機는 누가 먼저 絶叫하였나? 그것은 近代의 市民文化가 그 自身이다. □□市民的인 自由主義의 合理主義의 繼承者들의 입에서 먼저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知性的 混亂, 知性的 危機는 오로지 市民的인 知性, 市民文化의 混亂, 危機인 것이다. 그러면 市民的 知성은 어찌하여 混亂과 危機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近代의 市民文化는 무엇보담 合理性을 基礎로 하고 있다. 合理性이란 온갖 非合理的인 것, 즉 感情, 直觀, 意志 等を 完全히 捨象하거나 또는 그것을 自己 속에 解消시킴으로써 일러진, 일은바 純粹頭腦的인 知性的 論理를 일음이다. 近代 合理主義의 아버지 데칼트[데카르트]는 一切를 懷疑하던 끝에 自我만은 疑心할 수 없다는 確信을 얻었다.

그런데 이 自我란 思惟하는 自我였다. “나는 思惟한다. 그러므로 나는 存在한다.”라고 했다. 데칼트에 依하면 思惟의 本質은 明皙判明을 일음이다. 事物을 明皙判明에 依하여 判斷하는 것이 思惟의 本性이다. 明皙判明은 普遍的인 判斷을 일음이다. 一切를 오직 普遍妥當性에 依하여 判斷하는 것, 이것은 合理性에 依한 判斷이다. “三角形의 內角和는 二直角과 같다.”는 數學의 原理는 가장 普遍性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數學的 原理가 近代 合理主義의 基礎가 되어 잇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普遍的 合理性을 빚어내기 위하여는 그들은 쉼스툼[세스토프]의 말을 빌면 “온갖 人間的인 것을 拋棄하고 울고, 웃고, 嘲笑하는 것을 意欲치 안코 오직 理解하는 것”에만 沒頭하지 안하면 안되게 된 것이다. 즉 人間的 現實인 感情, 意欲 등을 一切로 拋棄하고 오직 頭腦的인 論理를 合理的으로 빚어내인 것이다. 말하자면 合理性은 純粹한 頭腦의 金子塔이다. 頭腦의 思惟 가운데서 分析, 綜合, 概念, 判斷, 推理 等の 온갖 法則(合理性)을 發見해 가지고 이 合理的 法則에 依하여 온갖 事物을 理解하려 한 것이다.

近代의 合理性이 自己를 貫徹키 위하여는 單히 人間的 現實인 感情, 意欲 등만을 拋棄하지 안코 다시 對象, 즉 客觀世界까지를 拋棄하지 안하면 안되었던 것이다. 知性은 그 本來의 意味에서 보면 人間이 自己 및 自己의 周圍인 客觀世界를 알고저 하는 人間性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알었다는 것은 自己 및 自己밖의 對象을 알었다는 것이다. 合理性이란 이러한 自己 및 自己의 對象을 알아내는 한 개의 知성이 方法이 아니면 안된 것이다.